

2015 / 10 / 12 (MON)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약보합세. 전일 삼성전자 호실적으로 투심호전됐지만 옵션만기일 영향으로 약보합 마감.

소프트웨어 업종이 0.8%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모습 나타냄.

수급측면에서는 동반매수세가 나타난 엔씨소프트 강세. 반면 동반매도세로 게임빌, 컴투스, 다음카카오 약세.

종목별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인피니트헬스케어가 7.2% 상승 마감.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298.89	0.6%	-13.0%	1,698 억	-533 억
(코) 인터넷	20,344.88	-1.7%	6.7%	-51 억	-127 억
(코) IT S/W&SVC	2,234.44	-1.1%	11.8%	-37 억	-277 억
(코) 소프트웨어	330.06	-0.3%	34.6%	44 억	-67 억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45.91	0.6%	-0.7%
MSCI Internet	174.90	0.6%	14.5%
MSCI IT Services	124.53	0.3%	5.8%
MSCI Software	166.20	0.5%	1.6%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61,000	0.5%	-21.2%	111 억	-62 억
다음카카오	123,300	-2.1%	-0.2%	-50 억	-126 억
한국사이버결제	32,500	0.0%	21.7%	6 억	-12 억
KG이니시스	18,650	-4.1%	4.2%	-5 억	-12 억
KG모빌리언스	15,450	-3.1%	6.2%	-1 억	-2 억
사람인에이치알	20,950	-2.8%	87.1%	0 억	3 억
KTH	9,200	-2.0%	20.3%	0 억	-1 억
아프리카TV	29,700	0.7%	11.0%	13 억	-14 억
SK컴즈	7,710	-2.3%	15.9%	-3 억	-1 억
KT뮤직	5,730	1.1%	6.3%	0 억	0 억
다날	9,830	-0.4%	21.4%	0 억	0 억
에스24	12,500	0.4%	79.3%	0 억	0 억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671.24	0.6%	26.5%
Facebook	93.24	0.8%	19.5%
Tencent	141.90	-0.1%	26.1%
Baidu	144.22	2.1%	-36.7%
Yahoo	32.52	0.5%	-35.6%
LinkedIn	195.61	-1.2%	-14.8%
Twitter	30.85	1.7%	-14.0%
Weibo	13.39	0.0%	-6.0%
SINA	43.98	0.2%	17.6%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94,000	0.9%	0.2%	59 억	171 억
SK	260,500	0.0%	22.0%	-294 억	92 억
다우기술	26,250	-4.9%	119.7%	-6 억	-31 억
포스코 ICT	5,500	-0.7%	3.8%	2 억	0 억
신세계 I&C	147,000	0.7%	31.3%	1 억	-4 억
동부	6,020	-1.6%	139.8%	0 억	-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52.39	0.1%	-5.0%
TCS	2,629.65	-0.2%	2.8%
Accenture	104.78	-0.2%	17.3%
HP	29.30	0.4%	-27.0%
Infosys	1,167.40	3.1%	18.4%
Wipro	592.35	0.4%	6.7%
NTT Data	5,770	-2.0%	27.8%
Fujitsu	580.20	4.0%	-9.9%
CSC	64.66	0.5%	2.6%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111 억	SK	-294 억
엔씨소프트	65 억	다음카카오	-50 억
삼성에스디에	59 억	컴투스	-16 억
한국정보인증	26 억	이니텍	-13 억
NHN엔터	22 억	코나아이	-12 억
아프리카TV	13 억	게임빌	-8 억
라온시큐어	12 억	다우기술	-6 억
한국사이버결	6 억	KG이니시스	-5 억
파티게임즈	6 억	유비벨록스	-4 억
더존비즈온	5 억	웹젠	-3 억
한국전자인증	5 억	엔게임	-3 억
엔텔스	4 억	SK컴즈	-3 억
MDS테크	3 억	케이사인	-2 억
한글과컴퓨터	3 억	넥슨지티	-2 억
원스	2 억	벅스	-2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5,000	2.4%	7.1%	65 억	8 억
EA	110,800	-2.7%	-8.1%	-16 억	-22 억
Blizzard	63,700	0.0%	-24.7%	22 억	5 억
NEXON	30,150	-2.4%	3.8%	-3 억	0 억
NAMCO	44,200	-2.4%	16.9%	-2 억	-20 억
King	13,150	-0.8%	-23.5%	2 억	-6 억
Konami	39,000	0.8%	16.4%	0 억	-4 억
Square Enix	68,000	-4.2%	-43.7%	-8 억	-10 억
GungHo	17,650	-1.9%	-22.4%	-1 억	0 억
Sony	12,450	2.0%	-2.4%	-2 억	0 억
DeNA	31,500	2.4%	-34.0%	0 억	0 억
Sega	23,600	-3.3%	16.8%	-1 억	0 억
Take-Two	46,400	-2.9%	78.1%	6 억	-13 억
Zynga	23,050	1.3%	-15.6%	0 억	0 억
Ubisoft	7,050	-1.9%	21.8%	0 억	-
Gree	8,660	5.4%	87.4%	0 억	-
Changyou					

Games

close	1D	YTD	
Nintendo	21,380	2.6%	69.6%
EA	65.04	-1.2%	38.3%
Blizzard	32.07	1.1%	59.2%
NEXON	1,605	0.1%	42.7%
NAMCO	2,970	3.5%	15.8%
King	14.62	0.0%	-4.8%
Konami	2,684	1.4%	20.9%
Square Enix	3,130	3.8%	24.8%
GungHo	386	4.3%	-12.5%
Sony	2,247	1.4%	55.4%
DeNA	1,271	2.7%	-18.3%
Sega	29.93	0.6%	6.8%
Take-Two	2.47	0.4%	-7.1%
Zynga	21.09	0.3%	39.0%
Ubisoft	580	0.9%	-19.9%
Gree	19.37	1.0%	-29.2%
Changyou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에스디에	171 억	다음카카오	-126 억
SK	92 억	NAVER	-62 억
엔씨소프트	8 억	다우기술	-31 억
NHN엔터	5 억	컴투스	-22 억
유비벨록스	4 억	위메이드	-20 억
사람인에이치	3 억	아프리카TV	-14 억
엑센	1 억	파티게임즈	-13 억
크레듀	1 억	KG이니시스	-12 억
슈프리마	1 억	한국사이버결	-12 억
콜프존	1 억	게임빌	-10 억
민앤지	0 억	코나아이	-9 억
가비아	0 억	더존비즈온	-8 억
디오텍	0 억	한국정보인증	-8 억
대아티아이	0 억	MDS테크	-6 억
아시아경제	0 억	선데이토즈	-6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44,000	-1.0%	30.6%	-12 억	-9 억
더존비즈온	19,350	-4.9%	108.1%	5 억	-8 억
한글과컴퓨터	21,850	1.4%	8.2%	3 억	-3 억
콜프존	92,000	-0.2%	264.4%	0 억	1 억
안랩	42,500	0.7%	18.1%	1 억	0 억
한국정보인증	16,150	-4.4%	364.7%	26 억	-8 억
슈프리마	21,550	-2.9%	-15.3%	0 억	1 억
갤럭시아컴즈	6,440	-1.1%	137.6%	0 억	0 억
지트리비앤티	10,350	2.0%	200.0%	0 억	-
MDS테크	25,600	1.6%	23.7%	3 억	-6 억
오상자이엘	11,450	-2.6%	-13.9%	0 억	0 억
인피니트헬스케어	10,600	7.2%	46.4%	2 억	-
케이사인	3,200	0.3%	30.1%	-2 억	0 억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7.11	-0.7%	1.4%
Oracle	38.10	0.6%	-15.3%
SAP	68.38	1.2%	-1.8%
EMC	27.86	2.5%	-6.3%
Salesforce	75.25	0.2%	26.9%
Adobe	83.82	1.9%	15.3%
Vmware	78.65	1.7%	-4.7%
Intuit	92.70	0.4%	0.6%
Syantec	21.00	-0.2%	-18.1%
CA	29.00	0.8%	-4.8%
Citrix	76.02	2.0%	19.2%
Autodesk	51.57	9.0%	-14.1%
Synopsys	48.04	0.5%	10.5%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다음카카오	-2.1%	최근이슈

News & Issue

'김범수 변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영향미칠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미국 원정도박 의혹 보도가 불거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여러 민감한 현안에 직면해있는 카카오의 향후 대응이 주목. 앞서 지난 1일 법사위 국감에서도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은 김 의장의 미국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조사진행 상황을 질의한 바 있음.

보도 내용은 '김 의장이 지난 2007년 11월, NHN 미국 법인 근무시 라스베이거스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 자료를 검찰이 미국으로부터 건네받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카카오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진위여부를 떠나 현행법상 상습도박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적어보임.

그러나 공소시효의 논란과는 별개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도박 논란은 향후 김범수 의장 개인의 이미지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범위를 넓히면 카카오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기적으로 미묘한 여운. '카카오택시' 등 SNS기반의 소셜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기업 이미지 관리는 절대적.

이 때문에 일각에선 '카카오를 압박하기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최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측은 검찰의 감청영장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바꿨는데, 이러한 카카오의 입장변화가 최근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고,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이 포털의 뉴스편향성을 문제 삼았는데, 이것도 역시 '카카오 길들이기'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현재 IT업계의 관심사는 국내 제 1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컨소시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냐의 여부. 앞서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계획 등에 대한 배점기준을 발표했고 외형적으로 김 의장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는 전혀 별개의 사안.

하지만 '평가 채점표와는 별개로, 금융 당국으로선 일반 여론의 추이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 현재로서는 김 의장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과 카카오측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 일각에선 '카카오가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일종의 빅딜설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정황논리에 기댄 추측에 불과.

현재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카카오, 인터파크, KT 3개의 컨소시엄이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라는게 금융권의 평가.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침이 나왔을때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가장 먼저 구체화되면서 다소 앞선듯한 인상을 받았음.

그러나 이후 컨소시엄 구성이 속속 완료되면서 현재는 3개 컨소시엄이 백중세라는 평가가 일반적. 현재 카카오 컨소시엄에는 현재 넷마블, 로엔, SGI 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KB국민은행, 텐센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여하고 있음.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와이디온라인	5.4%	최근이슈

News & Issue

와이디온라인(052770) 중국 나인유와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종료에 따른 후속사항 합의

와이디온라인이 '오디션'의 중국 서비스를 맡고 있는 나인유 인터내셔널과 '오디션' 퍼블리싱계약 만기 후 후속관련 사항에 합의 계약을 체결. 지난 9월 30일 '오디션' 계약종료의 이슈에 따라 와이디온라인과 나인유는 계약종료 후속관련 사항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해왔음.

양사는 오랫동안 쌓아온 파트너십을 토대로 긍정적인 방향의 합의점을 도출했으며, 12일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종료에 따라 후속 사항 합의 계약을 체결.

나인유 구이대표는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오디션'의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되었던 것은 파트너사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협력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향후 '오디션' 운영에 더욱 집중하고 유저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중국을 대표하는 장수게임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오디션'을 위해 양사가 최선을 다했던 만큼 법적인 분쟁 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어 흡족하다"는 입장을 전함.

와이디온라인 신상철 대표는 "중국 현지에서 '오디션'이 더욱 잘 되길 바란다"고 밝힘. 한편 와이디온라인은 이번 나인유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베트남, 남미 등 남은 해외퍼블리셔들과도 추후 원만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인피니트헬스케어	7.2%	최근이슈

의료영상솔루션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 차대통령 방미 사절단 포함

의료영상솔루션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에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164개사 166명 명단을 11일 발표.

특히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에는 IT·정보보안, 보건·의료·바이오 등 고부가가치·첨단 분야 관련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는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의료영상시스템 전문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그 중 하나.

의료영상시스템 시장은 의료기기의 발달과 병원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개발한 의료영상시스템은 현재 44개국 3,500여곳의 의료기관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 3차 전문요양기관의 85%가 이 제품을 사용 중.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주력 솔루션은 '의료영상정보 디지털 처리 솔루션(제품명: INFINITT PACS)'. 이 솔루션은 의료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디지털로 전환, 진찰실, 병동 등의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첨단 디지털 의료시스템.

영상의학과 뿐만 아니라 치과, 유방암 검진, 정형외과에서도 사용가능하며, 의원급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영상 조회 및 원격 판독을 서비스할 수 있음. PACS를 이용할 경우 환자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병원 간 의료영상 교환도 가능해짐.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이와 함께 병원에서 사용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방사선량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 저장 및 관리 가능한 웹 기반의 방사선량관리시스템 'DoseM' 등을 개발해 병원에 공급하고 있음.

김동욱 인피니트헬스케어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영상솔루션 기업 인피니트가 중소중견 소프트웨어의 대표적 기업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순방에 동행하며 미국 대형 의료기기 업체 및 의료 기관과 기술협력 및 마케팅과 관련한 상담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

이어 "최근 정부로부터 대형 과제를 수주했고 이 과제를 통해 미국 대형의료기관과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향후 미국 대형의료 기관 진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 순방에 동행함으로써 더욱 그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고 덧붙임.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한글과컴퓨터	1.4%	최근이슈

한컴, 인도 R&D센터 부지 물색, 다국어 오피스제품 'H워드'로 중동·유럽 공략

한컴은 올 연말 글로벌 이용자를 겨냥한 오피스 제품 'H워드(가칭)'를 출시하고, 인도에 R&D센터 설립을 추진 중. 6일 한컴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가 인도에 R&D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 중.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도에 사옥을 설립해 해외 진출 교두보로 삼는다는 계획.

김상철 회장은 지난 8월 직접 인도에 다녀온 이후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사옥 매입을 지시. 인도에 건립할 R&D센터에는 한컴과 계열사인 MDS테크놀로지도 함께 사용하게 됨. 한컴은 글로벌 이용자를 위한 오피스 제품 'H워드(가칭)'의 막바지 작업도 진행 중. 한컴은 올 연말 출시를 목표로 성능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H워드는 MS의 워드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하며, 해외 이용자를 겨냥한 다국어 번역서비스도 지원.

한컴은 'H워드'로 중동과 유럽,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언어를 가진 국가들을 겨냥한다는 계획. 영어권, 아랍권, 중국어권, 중남미 등 전 세계 130여개 이상의 언어를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 문장 단위가 아닌, 문서 형식 그대로 번역을 수행하고 PC와 클라우드 웹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번역을 지원.

한컴은 중국 시장 공략에도 주력 중. 지난 8월 중국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킹소프트'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 한컴은 자사의 웹 오피스 서비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한편, 킹소프트와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인수도 함께 진행하기로 함.

한컴 관계자는 "인도 사옥 건립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세계 오피스 시장 점유율 5%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글로벌 오피스를 준비 중이며, 중국 킹소프트와의 협업 등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2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0월 1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0월 1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